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08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

(창세기 24:1~25:18)

세월이 흘러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이삭 저 아이도 어서 장가를 가야할텐데...
마음씨도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여인이 없을까...?”**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남편이나
아내를 구해주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직한 하인, ‘엘리에셀’을 불렀죠.

**“엘리에셀, 너는 지금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거라.
거기엔 내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 좋은 사람 찾기가 쉬울게다.”**

엘리에셀이 말했어요.

**“나으리, 아무리 나으리의 친척분들이라고 해도.
생판 본 적도 없는 이삭 도련님한테
귀한 딸을 맡기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찌합니까요?”**

**“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터인데 어찌하겠느냐.
요즘 뭐 장가가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만일 마땅한 신부감을 찾아오지 못해도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이삭의 짝을 찾아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났어요.**

**값비싼 선물들과 낙타 열 마리도 함께 데려갔죠.
그 당시에 낙타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거든요!**

찌는듯한 더위의 사막길을 따라 한참을 여행한 끝에
엘리에셀은 하란 땅 근처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람과 낙타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가가 있었죠.

“워워워! 낙돌이, 낙순이! 너희들도 목이 마를테니
여기서 쉬었다 가자꾸나.”

낙돌이, 낙순이, 낙봉이, 낙구... 낙타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마침 하란 지역의 여자들이
물을 길기 위해 우물가로 찾아왔어요.

여자들을 발견한 엘리에셀은 ‘웁다구나!’ 싶었죠.

**“대박이야 대박!
이야~ 하나님께서나를 도우시는구나.
저리 배배어난 여인들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말이야!
하나님, 저 중에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저 여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한 번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 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상냥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요.헤헤 ”**

이렇게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고도 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엘리에셀 근처로 다가와
물을 길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주전자에 물을 다 채우자
엘리에셀이 곧장 물어봤죠.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에게
물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요.”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을까요?

젖다마다요!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 여인은 엘리에셀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열 마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나눠주었어요.

“어머, 낙타들이 많이 지쳐보여요.
여기 제가 길은 물을 가엸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고 싶어요.”

여인은 몇 번이고 물 주전자를 채워가면서
모든 낙타들에게 충분한 물을 마시게했어요.

**엘리에셀이 기다렸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거죠!**

엘리에셀은 짐 꾸러미에서 급히 선물을 꺼냈어요.

**“저...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답례로 이걸 받아주세요.
목걸이와 귀걸입니다.”**

여인이 수줍게 말했어요.

**“어머, 예쁘기도 해라.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저 그리고 실례지만 당신은 어느 집안의
따님이신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당신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훔의 손녀 ‘리브가’라고 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 아버지 댁에 당신이 머물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이 반갑습니다! 자, 자, 리브가에게 들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다구요?
자, 여기 음식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님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아주 많은 가축과 재물
또, 하인을 갖고 계신분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늦은 나이에 낳은 외동아들
‘이삭’ 도련님이 있는데요
도련님이 아직 결혼을 못 해서 아브라함님이
저보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보라고
여기까지 보낸겁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알려주었고 그 얘기를 들은
라반과 리브가도 크게 기뻐했어요.

“하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손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응해야지요.하하하”

그렇게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참을 걸어 아브라함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들판에 한 잘생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 저기 저 분은 누구일까? 늙름하기도 하지
저 분이 혹시 내가 결혼하게 될 이삭이란 분일까?”

그 때 리브가의 속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엘리에셀이 말했지요.

**“허허. 아주 잘 생긴 청년이지요?
저분이 아씨와 평생을 함께할
이삭 도련님입니다.
아, 마침 우리를 마중나오고 계시네요! 허허허.”**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삭도 리브가의 마음씨와
아름다움을 보고는 기뻐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껴주었고 리브가도 어머니를 잃은
이삭을 위로해주었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